

영암호 일대 복합해양관광레저 도시로 발돋움한다

영암군, '영암호 관광레저 기반 구축 기본계획 용역' 착수보고회 용역 결과 바탕 중앙부처 각종 공모사업 선제적 참여 방침

영암군이 5일 목포대학교에서 '영암호 관광레저 기반 구축 및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정부의 해양 신산업 육성과 연계, 영암호와 서남해안 일대를 남해안권 관광벨트 거점으로 조성하고, 체류형 해양레저관광 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영암군, 해남군, 전라남도, 목포대학교와 MC에너지,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등 SPC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전남 서남해안권 복합관광 거점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보고회 참석자들은 해양레저관광은 관광산업시장 전체 5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분야임에 공유했다.

나아가 최근 해안 중심 관광수요가 급증

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결합하는 정책사업 설계로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등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해양레저관광 중심지 조성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내수면 마리아 ▲해양레저인력양성센터(정비·관리 교육) ▲내수면스포츠가치센터(교육·체험) ▲조정·카누경기장 등 다양한 해양관광레저산업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으로 12개월간 수행될 용역에서는 영암호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모델을 설정하고, 지역여건 분석, 실행계획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거쳐 단계·사업별 추진전략과 재원확보 방안 등을 마련한다.

영암군은 용역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에도 선제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호 중심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서 산·관·학 상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건립 계획을 밝힌 영암-광주 초고속도로와 지역 인프라인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등을 해양레저관광과 연계해 영암호 일대를 전국 해양레저관광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영암군, 해남군, 전라남도,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대, 목포해양대 등은 '영암호 관광레저 기반 구축 및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무안군 태산농농조합법인, 제1회 가루쌀 경진 우수상

무안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제1회 가루쌀 우수 생산단지 경진대회에서 관내 태산농농조합법인(대표 이동욱)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가루쌀은 가루를 내기에 적합한 특징을 지닌 새로운 쌀의 품종으로 쌀 소비 감소에 따른 공급과잉을 개선하고 기존 쌀 가공식품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대회에서는 지난해 가루쌀 재배에 참여한 전국 생산단지 38개소 중 10개소가 경합을 벌여 5개소가 선정되었고, ▲대상 혼승농조합법인(전북 고창), ▲최우수상 품에농조합법인(충남 부여), ▲우수상 태산농농조합법인(전남 무안), 영실농조합법인(경남 산청), 농업회사법인 진도벤처팜(전남 진도)이 선정됐다.

태산농농조합법인은 공동영농 부분에서 주요 농작업별 공동영농일지를 작성·관리하고, 법인 자체 품질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회원 농가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 것에 높은 평점을 받았다. 또한 재배 매뉴얼에 따라 이앙시기(6.23~7.5), 재식주수(80주) 등을 준수하고 호우 피해 시 공동방제를 매뉴얼에 따라 복구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오는 19일에 충남 예산의 가루쌀 재배단지 권역별 순회교육이 열리는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무안=이기성 기자

제10회 영광찰보리어울마당 관련 경연대회 개최

영광군은 지내들 돌담공원에서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되는 제10회 영광찰보리어울마당과 관련하여, 제1회 전국 영광찰보리어울마당 만들기 대회와 영광찰보리 창작시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1회 전국 영광찰보리 허수아비 만들기 대회는 4월 27일에 군남면 지내들 돌담공원에서 개최되며, 누구나 자유주제로 4월 26일까지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3개 부문(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일반)으로 나누어 제10회 영광찰보리 어울마당시 방문객 현장평가를 통해 수상작 18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제1회 전국 영광찰보리 창작시 대회는 (사)한국문인협회 영광지부가 주관하며, 총 3개부문(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일반)으로 4월 29일까지 응모 신청을 하면 된다.

영광=박효중 기자

목포시, 개체수 적절 조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추진

목포시는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중성화사업은 포획→수술→후처치→방사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수술 후 후처치 회복을 위해 장마철, 혹서기 및 혹한기는 피하며, 체중이 2kg미만 이거나 임신, 수유 중인 길고양이는 중성화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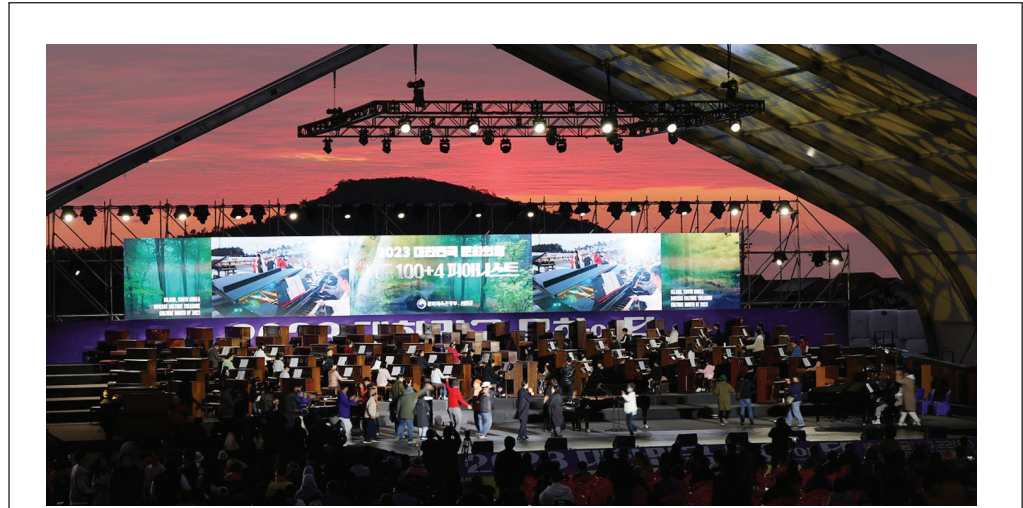
올해 사업 대상자는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수술은 동물병원 5개소, 포획·방사 분야는 전남서남권고양이복지협회 등 2개소가 맡는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사업 신청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길고양이 돌보기 등 신청인이 직접 시정에 방문해 신청하면 진행된다.

목포시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2021년 325마리, 2022년 860마리, 2023년 610마리 등 매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개체수 조절에 따라 고양이 소음 등 피해 민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 관계자는 중성화 수술 지원으로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부취재본부 송준표 기자



"100+4대 피아노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신안군 100+4 피아노섬 축제, 나도 피아니스트 참가 접수 시작

신안군은 100+4 피아노섬 축제 둘째 날(4.28)에 진행되는 '나도 100+4 피아니스트' 참가 접수를 4월 25일 18시까지 받는다. 바이엘 이상 치는 분이면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 접수는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https://pianoislandfestival.modoo.at/>) 접수 인원이 부족한 경우 행사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본 행사는 전문적인 연주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이 피아노를 연주하는 무대이며, 참가자들은 자신만의 음악적 기교로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신안=이덕주 기자

접수 안내 홍보 기간에도 참가 신청 문의가 쇄도했으며, 한 문의자는 "내가 직접 축제에 참여해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현실에 짜릿함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4.27~28일 양일간 개최되는 100+4 피아노섬 축제가 피아노를 사랑하는 모든 분이 참여해서 피아노 선율과 함께하는 낭만과 감동이 가득한 하루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피아노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선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함평군, '제과기능사 자격증 취득반 교육' 성료

함평군이 군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과기능사 자격증 취득반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8일 군에 따르면 함평군농업기술센터 플라워푸드교육장에서 함평군민 2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6일부터 4월 5일까지 총 25회에 걸쳐 교육이 이뤄졌다.

제과기능사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한 이번 강좌는 국가자격증 취득을 통한 함평군민의 역량강화 및 취·창업을 도모하고자 기본 이론 교육과 총 20개의 제과기능사 시험 과목을 실습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함평=김광춘 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